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6월 15일 발행(226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3 ISSUE
일선 안경원의 매출이 심각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매출 상승을 위한 대응책 등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시급하다.

04 NEWS IN NEWS
오는 10월부터 안경원의 슬러지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안경원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0 INSIDE
일본 안경체인 메가네슈퍼가 저가격을 앞세운 신흥체인과의 경쟁에서 아이케어 강화로 성공 경영을 이루어 주목받고 있다.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www.aoa.co.kr

미미상사 02.333.1123



글라스 스토리 · 렌즈 스토리

가/맹/모/집

OX QUIZ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로 등록 완료되어
관계법상 권리 보호받는 상표는 (주)안경매니져에**만** 있다.



HINT 상표 출원신청만으로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안경원에서는 상표권 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

ANSWER. 정답은 ○ 입니다.

1억 정부지원 창업 대출 자금 프로그램 연계

※안경 및 콘택트 브랜드에 한함

가맹 안내 · 문의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괄	서울	인천 · 강원도 · 경기도	대전 · 충청도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도	광주 · 전라도
이재형 본부장	서영태 팀장	강수용 팀장	노장호 팀장	이동기 팀장	문기영 팀장
010-9670-6666	010-9374-1739	010-9762-0608	010-9976-5058	010-2951-5485	010-7557-8208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6월 15일 발행(226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Marvis
마비스렌즈 런칭 기념 콜라보
●전품목 일정 금액 구매시 무료설치
●아이원3D 누진측정기 630만원
아이미광학 T.02.774.4477 H.P.010-9662-6898

안경사 구인구직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안경원 매출 대지진… 백약이 무효인가?

일선 안경원 10곳 중 9곳이 매출 비명… 긴급 처방 필요한 일선 안경원에 안경 조제료 현실화 등 제도 마련 서둘러야

일선 안경원이 아우성이다. 안경원 10곳 중 9곳이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 안경원은 점포를 정리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어느 곳은 야반도주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전국의 안경원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바닥권 매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초순까지는 그나마 매출이 오르나 싶더니 중순 이후 떨어진 매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는 매출 하락으로 일선 안경원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다. 그나마 십수년전 같으면 여름 시즌을 앞두고 선글라스 특수를 기대하지만, 지금은 어느 안경원도 선글라스 매출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포기 상태는 선글라스 생산공장이나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곳이 요즘의 안경원이고 업계이다.


▲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선글라스 매대. 여름 시즌만 시작되면 안경원과 달리 백화점의 선글라스 판매는 수십 년째 급증하고 있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선 안경원이 매출 하락에 허덕이는 원인은 많다. 적정 숫자보다 곱절이 많은 안경원 개설 숫자도 문제 요인이지만,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도 안경원 매출을 끌어내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시대를 거쳐 인공지능이라는 4차산업 혁명을 맞고 있는데도 안경원은 이제 겨우 온라인에 입문한 상태다. 세상이 시시각각 요동치며 변화하는데 안경사의 시각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며 변화를 등한시하고 있다. 최저가 생활용품점 D사가 2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5천 원짜리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T광학이 홈쇼핑에서 선글라스 3장을 7만9천원에 하나로 묶어서 한 해에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방관자처럼 처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성공의 여세를 몰아 올해 하반기부터 도수 안경테 3종을 묶어서 똑같은 형태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안경과 연관이 없던 N사는 종이로 만든 샘플 안경 10장을 모집 회원에게 발송한 후 특정한 날에 온라인을 통해 하루에 3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업체가 다양한 전략으로 안경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안경원의 고객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안경원은 도수 안경테까지 상실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선글라스의 경우 브랜드와 신제품의 가짓수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상대도 안 되지만, 가격도 온라인에 완벽하게 눌리며 선글라스 한 장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달에 소공동 본점에서 '2019 롯데 선글라스 페어'를 개최해 S, G, C 브랜드 등 총 47개 명품 선글라스를 무려 최대 80% 할인 판매하며 고매출을 올리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오는 16일까지 선글라스 특별 할인 행사를 전개하며 고객을 끌어 모으는데도 안경원은 대응책 하나 없이 속수무책이다.

안경원 회생은 가격경쟁 차단으로 역부족

현재 안경원의 매출을 회복시키고 고객을 다시 불러 모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대한안경사협회가 유일하다. 개인 안경원이 고객잡기에 나서봐야 전문 검안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안경원을 둘러싸고 있는 뒤엉킨 실타래를 풀면서 안경원의 숨통을 터줄 곳은 협회밖에 없다.

더구나 아무리 협회라도 초저가판매 안경원에 엄포를 해도 안경원 매출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안경가격도 시장의 자율논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강제 실시한 후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의 식자들은 가격보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격경쟁을 차단시키는 시간에 차라리 전 국민, 전체 안경사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해 인기를 되찾거나 안경의 보험화나 안경 조제료 청구의 제도화 등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 의견이다. 소비자들이 안경원을 다시 찾게 만드는 비결은 가격과 서비스, 또 제도적인 장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이 매출 하락과 불경기를 벗어나려면 오직 가격경쟁력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며 "백화점, 온라인 등의 선글라스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고객은 스스로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경원이 재도약하려면 조제료의 현실화 등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화가 아니면 각자도생하는 자율경쟁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 취재반

근용안경 온라인 개정안… 절대 다수가 반대

입법예고 기간 중 전자공청회에 총 15,044건 의견 답지… 개정안 찬성은 단 3건에 불과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입법예고가 지난 4일 완료됐다.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리면서 그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15,04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명확하게 반대를 클릭한 것은 32.8%인 4,940건에 불과해 '20만 안경가족들이 이번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안경업계의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대안협의 한 부회장은 "솔직히 예상보다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지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 폐기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남으로써 다음은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친 이후에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 • 의결 등 최소한 6차례 이상의 절차가 남아 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처리 등 여야 간 장기간의 대립으로 올해 본회의가 개최된 사례가 3번에 불과하고, 법안 처리율이 20%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안경사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올해 안으로 심의를 거쳐 시행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일선 안경사들은 국민과 정치권에 이번 개정안이 국민 안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악법임을 어필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란. 최종적으로 전체 의견은 15,044건이 접수됐다.

안경렌즈 슬러지, 10월부터 단속법 시행

환경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후 10월부터 관리대상에 안경원 포함… 안경원은 유해물질 걸러내는 여과장치 설치해야

안경렌즈의 폐수(슬러지)를 단속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고 ▶폐수 전자인계·인수를 의무화하며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경원의 폐수는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시 기타수질 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재를 받는다. 즉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2017년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진행한 슬러지 시료 채취 모습.

전국의 안경원이 오는 10월부터 연마폐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도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를 2차례 위반하면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만 해도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등록 취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부는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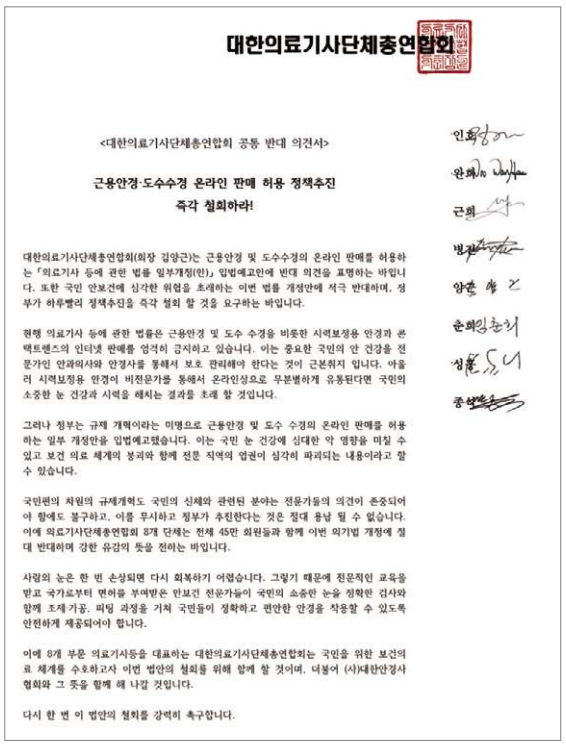
결국 전국의 안경원은 오는 10월 이전에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1577-8866

의기총, 의기법 개정안에 반대 천명

복지부에 '공동 반대 의견서' 전달… 45만 의료기사들 공동대응 다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가 지난 5일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기총은 이번 '공동 반대 의견서'에서 국민 안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공인 보건의료 면허자에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8개 단체의 45만 회원이 가입된 의기총은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공동 반대 의견서>

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추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는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을 비롯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국민의 안 건강을 전문가인 안과의사와 안경사를 통해서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 입니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이 비전문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눈 건강과 시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 눈 건강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건 의료 체계의 붕괴와 함께 전문 직역의 업권이 심각히 파괴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편의 차원의 규제개혁도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는 전체 45만 회원들과 함께 이번 의기법 개정에 절대 반대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눈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안보건 전문가들이 국민의 소중한 눈을 정확한 검사와 함께 조제가공, 피팅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8개 부문 의료기사등을 대표하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수호하고자 이번 법안의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이며, 더불어 (사)대한안경사협회와 그 뜻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공동 반대 의견서의 사본.

의기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위해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우리 의기총은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공동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이번 공동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준 의기총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 시행되려면 수많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만큼 우리 협회는 법안 폐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이며, 안경사 회원 여러분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756-1001

안광학산업진흥원 김원구 원장 재임

이사회서 내년 7월까지 연임 의결… 김원구 원장 "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집중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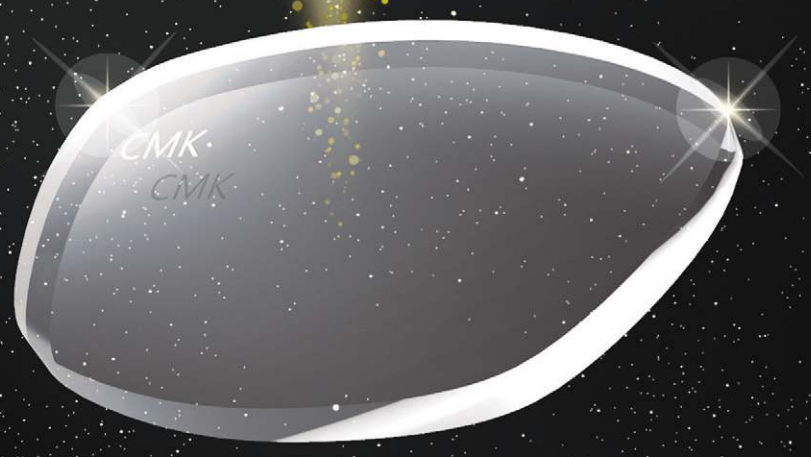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김원구 원장(사진)이 재임되었다. 진흥원은 지난 3일 제4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원구 원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그는 오는 7월 17일부터 2020년 7월 18일까지 다시 한 번 진흥원을 이끌게 됐다.

지난 2016년 7월 진흥원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원구 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안광학산업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하고 ▶대구국제안경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외 비즈니스 활성화와 수출증진에 기여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와의 협약을 통해 160억 원 규모의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성과를 이룩했다. 김원구 원장은 "앞으로 진흥원은 안경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한국의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한국 안경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루는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한국형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거점설립 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350-7800



▲ 지난 3일 개최된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제42회 임시이사회 모습.

케미 안경 렌즈



MAGIC FORM XT

Premium Customizing Design

경험해보지 못한 누진 시야를 제공드립니다.



특별한 나만의
레이저 마킹 서비스



정말한 누진설계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완벽한 개인맞춤

www.chemilens.co.kr

인터로조, 국내 최초 원데이 펄렌즈 '아스트라' 출시

별처럼 빛나는 컬러로 2가지 눈빛 연출… 골드, 실버, 레드 조화한 신제품 3종 런칭

㈜인터로조(대표 노시철)에서 국내 최초로 대표 브랜드 Claren의 원데이 펄렌즈 'Astra'를 개발 출시했다. 개성 연출을 희망하는 2030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본격 출시된 아스트라는 '우주의 별처럼 은은한 눈빛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담은 렌즈로 펄 컬러 안료를 사용해 반짝이는 눈빛을 연출하는 고급 렌즈다.

또한 아스트라는 렌즈 내경에서 외경으로 퍼져나가는 은은한 꽃 모양의 디자인 패턴과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눈동자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엣지 라인 패턴이 돋보이는 렌즈로 펄 렌즈의 단점인 이질적인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아스트라는 ▶골드 펄과 레드 펄을 활용한 '아스트라 글리터' ▶다크그레이, 돌핀그레이 색상에 실버 펄을 적용한 '아스트라 에스텔 그레이' ▶다크브라운, 오크브라운에 골드 펄을 적용한 '아스트라 에스텔 브라운'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관계자는 "아스트라는 빛을 받으면 펄로 인해 반짝이는 2가지 눈빛 연출이 가능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사는 새로운 콘셉트의 펄렌즈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적극 판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09-6677

패션기업 슈페리어그룹 안경시장 본격 진출



슈페리어옵틱스 설립 후 MLB 런칭 아이웨어의 차별화된 마케팅 눈길

(유)슈페리어옵틱스(대표 김대환)가 MLB 아이웨어의 마케팅에 적극 나서며 국내 안경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패션 1세대 기업으로 1967년 창립한 슈페리어그룹에서 슈페리어옵틱스를 설립해 안경시장에 전개하는 첫 번째 브랜드 MLB 아이웨어는 140년 전통의 아메리칸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클래식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로, 스포티하면서 모던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컬렉션이다. 특히 슈페리어옵틱스는 이번 시즌에 스트리트 감성에 레트로 무드를 더한 트렌디한 디자인과 세계적인 탑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 씨를 뮤즈로 내세워 LA 올로케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MLB 아이웨어 특유의 스포티하고 자유분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다.

슈페리어옵틱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 MLB 아이웨어는 안경원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편집숍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특수 소재의 기능성 제품과 옵티컬 라인 확대 등 제품 컬렉션을 더욱 강화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10-4349-2027

국민 여동생 수지는 '카린 틴트 선글라스'





브랜드 뮤즈 수지 씨와 여름 화보 선글라스로 일상의 시크 매력 발산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CARIN이 브랜드 뮤즈인 여배우 수지 씨와 함께 진행한 여름시즌 화보 'Urban Dream'을 공개했다.

여배우의 일상을 담고 있는 이번 화보는 오렌지, 그린 컬러의 비비드 한 의상과 메탈 프레임의 틴트 선글라스를 매치해 뉴트로 무드의 서머룩을 연출하며 시크한 분위기를 완성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화보에서 카린은 90년대 유행했던 선글라스의 색채와 디자인을 재해석한 다채로운 컬러의 틴트 선글라스로 브랜드 고유의 컬러를 표현해 젊은이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수지 씨의 화사하고 빛나는 화보와 영상은 카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99-8703

'열기 넘치는 스트릿댄스의 현장으로~'

이노티체인, 페스티벌 행사장에 부스 설치 후 시민들께 다양한 행사 진행

㈜이노티안경체인(대표 채경영)이 진주의 논개제를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19 진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지역 청소년과 축제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안경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축제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받은 이노티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을 전개해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 진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은 대중들에게 생소한 스트릿댄스 문화를 알리고 정착시켜 이를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문의 080-533-1000

제2회 토마토디앤씨골프대회 성료

안경원과 블루클럽 가맹점 원장 참가한 대규모 행사 주최… 1박 2일간 단합과 소통 확인

㈜토마토디앤씨(대표 황상엽)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포천시의 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토마토디앤씨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0명이 넘는 출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대회는 안경사업부 가맹점들만 참가했던 작년 대회와 달리 토마토디앤씨의 또 하나의 핵심 브랜드인 블루클럽의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어 눈길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토마토디앤씨의 황상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성원의 깊은 뜻으로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의 성공 경영을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골프대회에 출전한 한 가맹점 원장은 "이번 대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돈독한 관계와 소통을 확인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무엇보다 고무되었던 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합심해 지금의 불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02)3474-8400

변색렌즈는 트랜지션스

Transitions™

light under control™

Transitions.com

Photochromic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temperature, UV exposure, and lens materal.
©2018 Transitions Optical Limited.

Frames by Caroline Abram

변색시장 확대를 위한 에실로의 여정
이번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VIP DAY에 안경사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에실로 트랜지션스 VIP DAY

경기	키움히어로즈 VS 롯데자이언츠
일시장소	2019. 7. 5.(금) / 고척 스카이돔
참가신청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低價)보다 프리미엄 라인 뜬다'

'고가라도 나만을 위해 소비한다'는 베블런 효과… 아사히라이트, 카르페디엠 등 고가라인 각광

불황으로 굳어버린 소비심리 속에서도 일부 명성 있는 브랜드들은 가격파괴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이나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많은 사회 및 경제학자들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 소액의 소비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립스틱 등 저가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립스틱 효과가 생기는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바로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이다. 이는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고가품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근래 베블런 효과는 자기애의 강화 등으로 '가격의 만족감'보다는 '고가라도 나만을 위한 소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안경시장 역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럭셔리 브랜드 상품이 강세를 보였던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안경렌즈나 안경테 역시 경기불황에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이



는 '경기불황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가격파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안경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안경시장에 나타난 이 같은 베블런 효과로 고객의 심리적 만족감을 채워주는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고가의 아이템들이 선보이는데, 이런 사례는 하우스브랜드로 런칭한 이후 현재 큰 성공을 거둔 J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C렌즈, T렌즈 등의 안경렌즈 브랜드 역시 시장의 가격파괴 흐름에 편향하지 않고 독자적인 프리미엄 라인을 구축해 안경사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프리미엄 안경렌즈인 아사히라이트와 하우스브랜드 카르페디엠 등은 이런 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안경시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의 성장세가 어느 높이까지 오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경매니져 상무이사 윤병노

世評

방(房), 당(堂), 안경

우리는 넓을수록 폭의 자유로부터 더욱 폭이 커짐을 느낀다. 겸허는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만들어줌으로써 깊이 생각하게 하고 편협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편벽성이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편벽성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한다. 단 책읽기는 당위가 아닌 자유의 영역에서 받아드려야 한다. 책은 우리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과민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편견에 휩싸인 단편적인 시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탄성이 있다.

실패했다고 죽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살아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겸허이다. 과신이나 자기부정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것은 하늘이 내게 부여한 시련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디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신체단련 ▶지식단련 ▶정신단련을 꼽았다. 그 유명한 비폭력 • 불복종운동은 간디가 단련된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인(匠人)의 세계에는 선배의 동작을 어깨 너머로 스스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 선배는 새내기에게 찬찬히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과연 효율적이냐고 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말로 명확하게 설명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실력을 빨리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초밥 달인의 세계에서 어엿한 한 사람의 몫을 하자면 밥 짓는데 3년, 밥 쥐는데 8년이라는 말이 융통되는데, 최근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밥을 쥘 수 있도록 초밥 달인을 양성하는 학원도 있다고 한다. 배우기보다 익숙해져라, 더 나아가 배우는 쪽도 보다 큰 관심을 갖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간의 존재양상은 문화관습에 따라 변화된다. 생각하며 읽기를 거듭하며 매사를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었다면 이전 일들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요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단지 독서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적인 만연하고 감각이 유행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구조, 의식, 성장, 그리고 건강과 수명, 적응능력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육체와 정신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하며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방(房), 그것은 인간이 기거(起居)하는 곳 위에 세공업(細工業)의 장사 집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다.

/우암 문윤서(본지 편집위원)

나도코리아 | www. 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김서림 방지 클리너 My deskmate(내짝꿍) 출시!



▶ 등산, 낚시, 오토바이 운행 시 최적의 파트너/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도 김서림 걱정 끝!

▶ 200회 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이 5~6시간 지속됩니다. 단, 클리너를 절대 세척하시면 안됩니다.

▶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등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 자가검사번호
F-A01B-C005001-A170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 053-353-9992 F 053-351-406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DESIGN BY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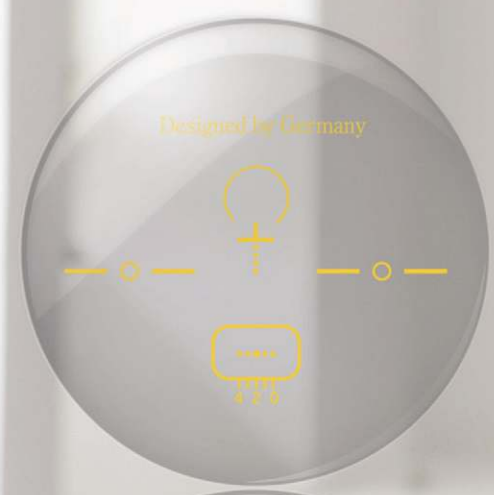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본격 출시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 독일 GF공법으로 더욱 넓고 편안한 시야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젼,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안경원 미래 담은 '아큐브 온라인 콘텐츠' 개막!

JJI,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 제공… 이정민 차장, "안경원의 비지니스 확대에 이용하시기를…"

Johnson&Johnson VISION

㈜한국존슨앤드존스비젼(J&J, 대표 이선영)은 일찌감치 2005년에 전문교육센터(Johnson&Johnson Institute, JJI)를 설치했다. 현재는 교육원장인 김재민 전무이사를 필두로 총 9명의 전문가들이 안경사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하며 전문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JJI는 매년 1,400여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기능 교육과 첨단 검안법 등을 전달하는 등 안경사의 미래화에 앞장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로 아큐브 콘텐츠를 개설해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육시대를 열었다. 아큐브의 JJI가 종이 세대에서 벗어나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혁명을 가속화시키는 5세대(G)에 걸맞게 온라인 교육을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JJI의 교육 목표와 향후 계획 입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민 차장으로부터 아큐브 콘텐츠 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큐브 콘텐츠 시대의 개막을 축하한다. J&J의 교육센터인 JJI에 안경사들의 호평과 기대가 크다.

이정민 차장: 감사하다. 안경사께서 우리 교육센터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니 감사하다.

▶그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JJI 교육에 참가했다. JJI의 주요 목표는 이루어졌나.

이정민 차장: (웃음). 아직 멀었다. 흔히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다만 여타 교육은 필수적으로 자사 제품의 선전을 끼워넣지만 우리 JJI는 아큐브 제품 소개보다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해 왔다. JJI의 설립 목적이 안경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서 양안시 강의나 정밀한 굴절검안법 등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교육에 재참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보다.

이정민 차장: 아큐브 교육은 콘택트렌즈 이외에 안경렌즈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많은 안경사들이 '아큐브 교육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 고 말하신다. 특히 교육받은 내용을 실무에 당장 실행하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게 강의해 도움이 많다고 말하신다.

▶최근 안경사들 사이에 아큐브 콘텐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정민 차장: 그동안 JJI는 오프라인 교육에 집중해 왔다. 업체와 안경사가 서로 만나서 눈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속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안경사가 편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온라인이 효율성 면에서 효과가 커서 온라인에 아큐브 콘텐츠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국존슨앤드존스비젼 이정민 차장

▶온라인은 그야말로 가상공간이다.

이정민 차장: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볼 때 안경계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 안경사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 매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인이 찾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학회나 업체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교육이다. JJI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안경사가 손 안에서 볼 수 있고, 안경사가 어느 때라도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큐브 콘텐츠는 제작시간에 비해 소모되는 시간이 빠르고 또 자료가 방대해야 되기에 우리 교육팀이 열심히 준비했다. 앞으로도 자료를 다양하고 폭넓게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우려야 한다.

▶아큐브 콘텐츠는 안경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이정민 차장: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렌즈의 산소투과율 등 기본적인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요즘의 안경사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의 전문성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안경사는 지금까지 한정된 교육자원만 공급받았다. 그래서 우리 아큐브가 국내 최초로 안경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아큐브 콘택트렌즈' 라는 탭 안에 담았다. 아큐브 콘텐츠는 단순하게 기술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눈에 제공하는 혜택이나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는지 등 다양한 전문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에 들어가면 난시나 노안과 관련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시연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학습하



고 적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양안시만 해도 임상케이스를 통해서 양안시를 각 상황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담음으로써 안경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 동시 진행

▶아큐브 콘텐츠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들린다.

이정민 차장: (웃음). 아직은 아니지만 아큐브 콘텐츠의 목표는 모든 콘텐츠를 담는 것에 있다. 아직 만능은 아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콘택트렌즈 이외에 아큐브 제품 정보, 난시 검사방법, 노안에 있어서의 가입도 측정방법,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피팅 방법 등이 영상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다. 특히 양안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상케이스를 정리해 안경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각 상황에 따른 세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눈 건강 이야기' 카테고리에는 근래 안경시장의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의 근시 인구가 어느만큼 증가했는지 등 안경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업로드 하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말한다.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는가.

이정민 차장: 우리 아큐브는 조직 체계상 언제나 변화를 모색해 왔다. 특히 내가 속한 JJI는 수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화하고 혁신한다고 자부한다. 예전에는 교육센터팀과 방문교육팀이 있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본인이 이끄는 디지털팀이 신설된 것도 변화의 하나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아큐브 통합 사이트의 도서관과 아큐브 랜선 교육인 라이브 강의를 스카이프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제공한 교육을 다양한 토픽으로, 또 여러 강연자의 다양한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JJI는 수시로 교육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제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방에 계신 안경사들도 온라인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속만 하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JJI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안경사들에게 전달하고픈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이정민 차장: 우리 JJI팀 모두가 안경사의 화이팅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다행스럽게 국내의 대다수 안경사께서 국민 안 보건의 지킴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시고 있다. 이러한 지킴이 의식이 살아있는한 우리 안경계는 반드시 밝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아큐브 JJI팀은 안경사 분들이 사명감에 더욱 충만하시고, 또 이러한 전문가적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도록 교육에 만전을 다할 각오이다.

또한 아큐브 교육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모두 전문성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JJI의 아큐브 콘텐츠와 스카이프 랜선 교육을 더욱 많이 이용하시어 불경기를 극복하시기를 소원한다. 감사드린다. 〈정〉

이정민 차장 약력

-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 학술부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의물리공학 박사과정 재학
- Pennylvania주 O.D. 라이선스 취득 (U.S. Board Certified Optometrist)
- 미국 노바 검안의과대학원 졸업(Nova Sou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Optometry)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졸업(화학 전공)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국내 패션업계 거장 슈페리어그룹
아이웨어 시장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SUP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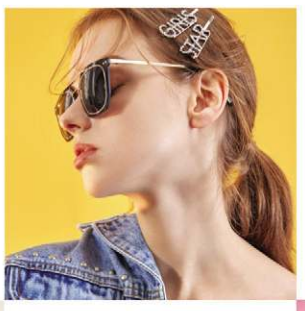
슈페리어그룹은 52년간의 국내외 신뢰와 패션 업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브랜드를 확보하였으며 플랫폼을 만들었다. 1967년 동원(動元)섬유로 창업하여 현재는 패션 브랜드 15여 개와 잡화·라이선스·금융·문화 예술 등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대한민국 패션 기업 1세대로서 지난 52년 대한민국의 섬유 패션의 역사와 ㈜슈페리어를 바탕으로 아이웨어 산업에 접목하여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한다.슈페리어는 자체 브랜드 개발/생산은 물론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패션 선진국으로부터 디자인 및 상품을 소싱, 라이센스하여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또한 연간 수백만 장 이상의 최고의 제품생산을 위해 국내 패션기업 중 유일하게 제품별 생산라인을 창사 초기부터 반세기간 국내에 자체계열공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개성,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의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1979년 대한민국 제1호 골프웨어 브랜드로 탄생된 "슈페리어"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 김희선을 뮤즈로 내세운 브리티시라이프스타일골프웨어"임페리얼", 국내유명 90여개의 백화점 유통을 전개중인 이탈리안 라이프스타일 남성캐주얼 "프랑코페라로" 프랑스 대표디자이너 '마틴싯봉'의 본사인수 및 52개국 라이선스 전개권 획득하면서 다양한 라이선스사업을 진행, 마틴싯봉의 디자인감성을 바탕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론니슈즈(LONELYSHOES)"로 명성을 얻은 프렌치영컨템포러리 "블랙마틴싯봉"과 얼굴천재 "차은우"를 뮤즈로 활용한 프렌치스트릿브랜드"BMS FRANCE"까지 브랜딩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얼마전 장신 개그우먼 장도연과의브랜디드영상을 선보이면서 유튜브 조회수 30만이상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룬 블랙마틴싯봉은 현재트렌드를 통한 다양한 테스트와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면서 꾸준하게 패션성장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패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및 아시아에서 가장 빅브랜드로 성장한 MLB/MLBKIDS 의가능성을 보고 미국 MLB본사와 직접 라이선스를 체결. 새로운 디자인, 유통,마케팅을 통한 슈페리어 옵틱스만의 새로운 MLB/MLB KIDS를 전개하면서 국내 유명 백화점을 시작으로 면세점,안경원 유통을 전개하고 있다.전문 기업인 슈페리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유통망 영업력을 통한 전국 유명백화점의 선글라스 영업 및 전국안경체인유통을 위함에 있어 옵틱컬사업부의 인력 세팅을 통한 옵틱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슈페리어 그룹사에서 보유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회사인 마틴싯봉파리를 비롯해 블랙마틴싯봉 선글라스, 안경라인의 런칭, PB브랜드로의 전개를 통하여 유명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선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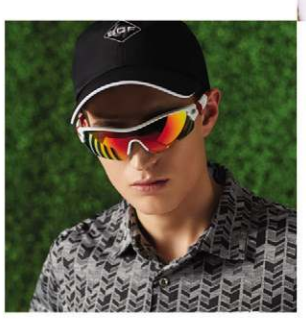
























SUPERIOR 슈페리어옵틱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페리어타워
www.superiori.com

슈페리어 옵틱스
로컬영업팀 이정근 02- 2192-3225
www.majorleagueeyewear.com

시력 보호하는 또 하나의 비결?… '니덱 광학기기'

미양광학, '니덱 OPD 스캔III' 등 최첨단의 다양한 광학기기 공급… 고객에게 첨단 기기로 안경사의 신뢰도 완벽 견인

세계 최고의 정확성과 정밀성, 또 수십 년을 사용해도 그 탁월한 기능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음으로써 일선 안경사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NIDEK 광학기기는 그 가치에 진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02)779-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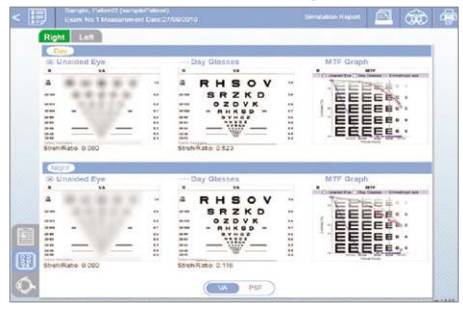
▶꿈의 검안기- NIDEK OPD ScanIII

OPD 스캔III는 각막 형성과 굴절력 에러, 동공계측을 통해 종합적인 고위수차를 분석하여 시력 저하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 측정하는 광학기기로 안과에서 사용하는 검안기를 안경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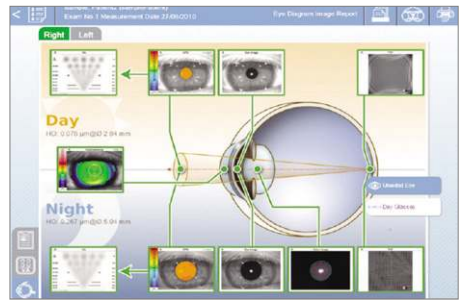
●다양한 측정 및 분석기능



●나안시력과 주야간 안경교정, 대비감도 등 교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고객에게 제시해 안경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고객의 시력과 안경처방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제작된 OPD 스캔III만의 특별한 디스플레이 화면.







▶드릴링 자동옥습기 – LEXCE Trend

드릴 기능이 추가된 빠르고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안경사들에게 절대만족을 제공하는 렉시 트렌드는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스마트한 자동옥습기로 확고한 유명세를 얻고 있다.

● 콤팩트한 사이즈의 파워풀한 성능

옥습기 본체에 트레이서, 블로커, 드릴링 유닛과 데모렌즈 스캐너까지 내장돼 좁은 공간에서도 모든 작업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다양한 모양의 무테 구멍 가공

단순한 구멍은 물론이고 더블 홀, 코 브리지 슬롯, 큐빅을 기우기 위한 보석 홀 등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다.



▶드릴링 자동옥습기 – LEXCE Pro

산각/미니산각, 홈파기 기능, 면치기 기능, 광택 기능, 드릴링 기능 등이 가능한 자동옥습기 렉시 프로는 이외에도 가공 전 시뮬레이션 확인 및 조정과 부분 사이즈 변경, 최대 2만 개의 패턴 데이터 저장하는 만능 옥습기다.

● 한글 메뉴 지원 및 편의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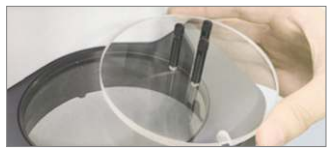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으로 편의성과 내구성이 향상됐고, 특히 모든 메뉴와 메시지를 한글화하여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



● 오토메틱 커버



● 쉬운 유지관리



TOMATO D&C
(주)토마토디앤씨

㈜토마토디앤씨 2019 본사 채용

㈜토마토디앤씨는 대한민국을 대표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전국 가맹점(안경원 430개 / 블루클럽 350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NO.1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토마토디앤씨는?

추진력 있는 대표님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어벤져스"기업
돈 잘 벌고 잘 쓰는 회사, 직원들의 복지가 중심인 기업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

모집 기간	채용 시까지
지원 방법	이력서 제출(자율 양식) tomato-dnc@naver.com
문 의 처	02-3474-8400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자녀 학자금 100%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기 타	지원부서 必 기재(영업/전산/기획마케팅/디자인)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패기와 열정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할 인재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TOMATO D&C 모집 요건
(주)토마토디앤씨

구 분	업 무	자 격 요 건	비 고
영업	**안경사업부**(일공공일·안경나라·See Channel) -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 - 프레임 및 렌즈 영업	- 초대졸 이상 -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 및 경력자 우대 - 각 부서별 남·여 00명 모집	자차 소유자 우대
전산	**전산팀** - ERP 전산 개발 - 홈페이지 관리		전산 개발자 우대 웹개발 경험자
기획마케팅	**기획마케팅팀** - 상품기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프로모션 기획		
디자인	**디자인팀** - 가맹점 디자인 지원		포트폴리오 첨부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 안경나라 The Best Option | Seechannel | Blue Club 남성뷰티케어전문점

FRANCHISE

지니스, 불경기 속 '무서운 상승세'

조직 개편 통해 가맹률 신기록… 올해 3/4분기 중 300호점 가맹 자신

JINY's

지니스안경체인(대표 김진희)이 국내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거침없는 가맹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말 경기도 부천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현재 접수된 가맹점만 25개점을 상회하면서 전체 임직원이 전국으로 상담출장을 다니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지니스안경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본사의 확장 이전과 직원 충원, 또 조직체계 재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자사가 최근 PB 공급업체 확대 등 여러 유명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속속 체결하고 있다"며 "지니스 체인의 이 같은 성장세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안경원과의 단순한 가격경쟁이 아닌 PB제품을 통한 경쟁력 확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최근의 가맹광고에서 강조했듯이 올 3/4분기 내에 300호점 가맹이 결코 허황된 목표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의 010-8641-5093



▲ 지니스안경, 광주 산수점.



▲ 지니스안경, 인천 연수점.


▲ 지니스안경, 양산 물금점.

FRANCHISE

교육으로 전문화와 매출 쌍끌이

아이세이버, 아큐브 학술세미나 개최… 교육 강화로 매출까지 견인

eyesaver

㈜아이세이버안경체인(대표 심재후)의 광주 본사 교육원에서 지난일 아큐브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아이세이버의 가맹점 원장님과 콘택트렌즈 담당 선생님 11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아이세이버 • 아큐브와 함께하는 기능성렌즈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라는 주제로 토릭렌즈 등 기능성 콘택트렌즈의 관련된 강의가 전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세이버 교육팀의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에는 아큐브 학술부와 함께 전체 가맹점의 기능성렌즈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매장방문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기능성 콘택트렌즈의 교육을 통해 난시와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등의 부문에서 더욱 큰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는 올바른 처방부터 정확한 제품추천 등을 꼼꼼하게 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툴을 제공함으로써 가맹 원장님 및 선생님들의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62)454-0500



LENS

소모 첨단 공정에 견학단 '탄성'

강릉영동대 안광과생들 안경렌즈 생산공정 견학… 국내 생산시설에 '자부심'

SOMO (주)소모비전

㈜소모비전(대표 신승종)의 글로벌 Rx 생산공장에 대한 강릉영동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김홍선) 재학생들의 공장 견학이 지난 5월 강원도 횡성공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소모비전은 FDA, ISO, Colts와 같은 세계적인 품질인증으로 공신력을 얻고 있는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Stock 렌즈와 Rx 렌즈의 정의 및 차이점 그리고 몰드가공부터 각 공정별로 자동 생산되는 과정을 소개해 학생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소모비젼은 각 공정 투어를 마친 후 Q&A를 통해 학생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통하며 회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장견학에 참가한 한 학생은 "국내 최대 프리폼 설비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소모공장을 직접 견학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 기쁘다"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학과의 공장견학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소모비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모비전의 관계자는 "미래 안경산업을 이끌어나갈 예비 안경사들의 전문성 배양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견학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1544-6999



CONTACT

컬러 뛰어난 '레이셀 컬러스' 탄생!

바슈롬코리아, 차별화된 블루/그린 컬러 2종 출시… 생기 넘치는 컬러감 최상

BAUSCH+LOMB 바슈롬

㈜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에서 차별화된 컬러의 새로운 브랜드 'LACELLE COLORS'의 파우더 블루, 골든 올리브 등 2종을 선보였다. 바슈롬의 대표적 브랜드인 레이셀 컬러스는 2015년에 선보인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레이셀의 새 브랜드로, 유니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1020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올리브와 블루 컬러를 안쪽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패턴처리로 자연스럽고 개성 있는 눈빛을 연출해 준다.

특히 레이셀 컬러스의 파우더 블루는 블루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해 언제나 맑고 깨끗한 느낌을 표현해주는데,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블루와 그레이의 자연스러운 블랜딩으로 어반 시크한 매력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선보인 골든 올리브는 밝고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반짝이는 올리브 컬러를 통해 생기 넘치는 눈빛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착용감이 우수한 레이셀 컬러스는 55%의 높은 함수율과 첫 착용부터 편안한 얇은 엣지 디자인 설계로 촉촉함을 제공해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바슈롬의 마케팅팀 관계자는 "레이셀 컬러스의 2종 시리즈는 일반 렌즈에서 보기 어려운 트렌디한 컬러를 섬세한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특징"이라며 "생기 있는 컬러감으로 또렷하고 개성 있는 눈빛을 선호하는 1020 소비자들에게 새 레이셀 컬러스는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문의 070-7167-9922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대상

주최 | 한국기업발전진흥회　후원 | ChosunMedia 조선일보

프랜차이즈브랜드(안경) 부문







철저한 상권분석

지역특성, 입지조사, 상권분석을 바탕으 성공확률을 극대화 시킵니다.



최고의 운영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하우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상의 상품공급

최고의 품질(Hi-Quality) 최저의 가격(LO-Price)으로 생산 공급하며 이것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사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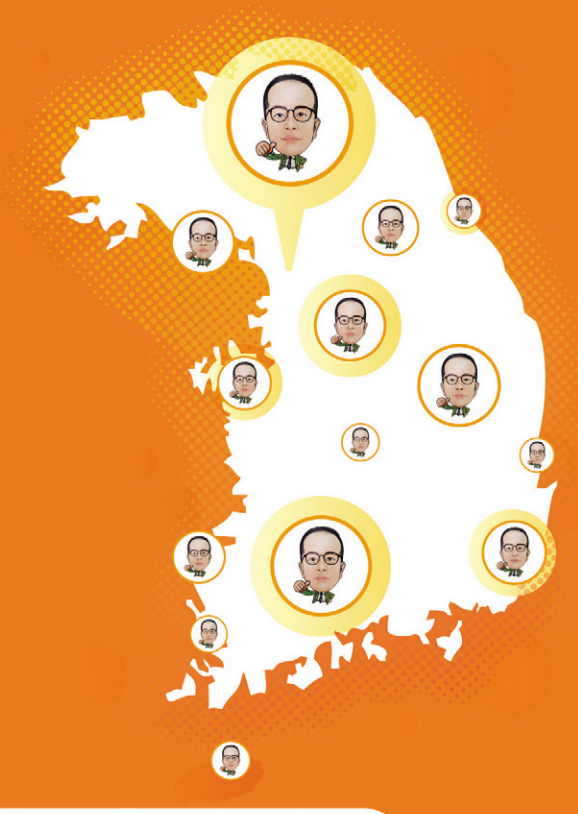
가맹점별로 지역 상권에 맞게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며 컨설팅 해드립니다.



가맹점 모집

착한가격정책을 내세우는 으뜸50안경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더 좋은 상품을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top50glasses.com　본 사 전 화 | 070-4148-3331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71, 5층　부대표 전화 | 010-9405-7559



모집 지역

서　울	강남구청, 대림, 돈암동, 중계, 청량리, 수색외				
경기도	구리, 성남, 파주외	경상권	경주, 양산, 진주외	충청권	온양, 청주, 충주, 제천외
전라권	여수, 군산외	부　산	기장, 서면, 부산대외	인　천	검단, 계산, 동인천외
대　구	침산, 상인외	대　전	유성, 세종외	강　원	동해, 속초외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ye & Health Care
NIDEK

최상의 검안 서비스를 위한 NIDEK 검안 시스템



검안세트1

- 일반 LCD와 다른 고화질 광학전용 LCD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색감으로 적/녹 검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 같은 VA에서 시표의 글자를 랜덤하게 변환하여 암기에 의한 검안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양안시, 대비감도, 야간시력, 프리즘, 입체시 검사 등 다양한 시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제품구성** :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OS-5010, LCD차트 SC-1600P 또는 LC-190P.



검안세트2

- 1.1m 설치공간에서 5m 시표의 효과, 포롭터의 위치에 따라 시표가 높이가 자동 조절되는 공간절약형 미러 차트입니다.
- 저반사 특수 코팅 패럴을 사용하여 외부 조명에 의한 시표의 밝기/ 농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검안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 SSC-370의 나이트 모드는 밤과 같이 낮은 조도의 상황을 제공하여 야간시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품구성**: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COS-2000, 미러 차트 SSC-370



콤팩트 검안시스템 TS-310

- 1㎡ 최소 공간의 검안시스템
- 하나의 LCD로 원/근용 동시 검사
- 126종류의 다양한 시표 내장
- 주/야간, 대비감도, 프리즘 시표 내장
- 매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자동포롭터 RT-5100

- 조용하고 신속한 렌즈 디스크 응답성
- NPC, NPA, NRA, PRA 검사 기능
- 핀홀 현상을 최소화한 슬림한 디자인
- 8.4인치 터치 틸팅 LCD로 사용이 편리
- 이마감지 센서, 단안PD, 근용LED 램프



수차분석기 OPD Scan III

- 시력의 질을 좌우하는 고위 수차 분석
- 각막곡률, 굴절력 분포도 측정
- 백내장, 주/야간 동공 크기 및 거리 측정
- 교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화면
-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연동

미양광학(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우 04527)
T. 02-779-7400~2, 02-752-8721 **F.** 02-777-4730

영업이사 김창해 010-4491-4009
기술부장 정민우 010-2465-6621